2020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9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행정안전부 |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던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줍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이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을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밑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8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57P

03. 의제 실행 77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81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89P

대구문화예술
프리랜서
사업설명회&창립총회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8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01 의제소개

보다 더 활동할 수 있는 사회 고용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대통령, 과학자보다 유튜버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했을 때, 1위는 대부분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 등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유튜버, 2위는 공무원 등의 장래희망 선호도 직업군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망했던 산업군 또는 직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군 및 직종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였으나,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공업사회를 거쳐 현재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의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일을 한다'의 개념은 대부분 어느 한 단체에 속하여 정년 퇴직까지 보장받으며 근무하는 형태로 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한 단체에 속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 사업 및 업무 계약을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 한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Gig-worker와 불안정한 사업고용 안전망

반면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제도(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유래 없는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해였습니다. 특히나 특수고용의 형태 노동자 (ex.프리랜서)들은 더욱 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문화예술분야의 프리랜서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 중 하나인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불안정한 요소를 안정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고용하는 대표이자 직원인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은 노동협동조합의 독특한 협동조합이며 창업보육을 주목적으로 개인의 사업개발과 근로자 지위를 결합한 혼종 협동조합입니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프로젝트별 용역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프리랜서 간 협업과제를 통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각 주체별로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민간의 영역인 대구청년유니온에서는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현황을 분석을, 공공의 영역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청년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추진을 함께했고, 대구지역 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자원 및 인력연계를 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

이러한 문화예술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들이 보다 더 활동 할 수 있는 사회 고용안전망을 구축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지원을 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협동조합 정신을 통해 프리랜서와 지역 간의 상생 및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추진하는 협동조합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사례처럼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의 대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 벨기에 참고)

사업고용협동조합 vs 프리랜서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의 독특한 협동조합 모델로 창업보육을 주목적으로 개인의 사업개발과 근로자 지위를 결합한 혼종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주 특징은 사회안전망, 예비 창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보장, 협동과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프리랜서협동조합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조합과 협력(협동노동)하여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들에게 프로젝트를 할당하여 조합원이 그 일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지급을 한다. 이에 협동조합은 독립적 노동자들의 일감수주의 불안정성과 프리랜서라는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대응한다. 대표 사례는 벨기에의 스마트이다.
노동자(직원) 협동조합	조합원은 피고용자(근로자)로서 이윤추구기업의 고용 불안정 및 자의적 경영에 대응하여 조합원의 질 좋은 고용 창출과 안정을 추구하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협동조합 부가 설명

1. 목적

예비 창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협동조합의 보호를 통해 독립적인 창업가로 발전해가는 방식이며, 대표사례는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CAE)이다.

2.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은 사업프로젝트 보유자(프리랜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자직원(근로자)의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고용인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해준다.

3. 예비 창업자의 자율적 경제활동보장

사업 진단, 테스트,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을 지원하나 투자, 재정에 관련한 사항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 도움을 줌.

4. 협동과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과 함께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합원 모임을 통한 교류와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시장 확대 및 사업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사업고용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2.22.)

사업고용협동조합 등을 통한 고용증진 정책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2.15.)

의제 실행 방안

1.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

- 민간 단체(한국지방공제회)의 운영자금 마련
- 공공기관 협의체(달구벌커먼그라운드)의 후원금
- 공동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수수료

2. 조합원 및 창작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 프로젝트 별 용역계약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 분야별 교육(경영, 재무, 노무, 마케팅, 사회혁신, 예술인 정책정보 등)
- 창작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3. 협동조합 주체로 공동프로젝트 수주 유치

- 협업기관: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대구공동체정책협의회

4.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 구축하여 프리랜서의 자립적 창업지원

- 후원자 조합원 구성 : 교수, 협동조합 전문가, 회계사, 사회혁신 담당자 등

실행계획 (추진일정별)

6~9월 협업테이블	• 설립추진 협업테이블 진행 • 컨퍼런스 의제협업테이블
7월 온라인 청년 의제포럼	• 2020 ON-라인 대구 의제포럼 내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공론화
8월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내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고도화
9~11월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 사업설명회 및 창립총회 • 협동조합 설립신고 • 협동조합 참여 프리랜서 모집 • 협동조합 등기 및 사업자신고 완료 • 협동조합 설립완료
10월 의제 역량강화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사업 1부- 문제정의(강의 · 실습) 2부 – KPI(성과지표)강의 및 실습: PDM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1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의제 실행 자원 연계
2	대구청년유니온	의제 실행 자문
3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의제실행 논의 참여 및 협업지점 모색
4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관 연계 및 의제 실행 지원

실행 주체 소개

1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설립목적

대구 이전 공공기관(9개), 대구지역 공공기관(4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업 네트워크.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하여 협업사업 발굴·운영,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고자 업무협약을 통해 정식 발족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참여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

- 지역인재 역량강화 공공캠퍼스
- 대구 소셜 크라우드 펀딩대회
-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2 대구청년유니온

설립목적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및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보호

비전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노동권 보장 및 생활안정

주요사업

- 노동상담 및 노동법 교육
- 정책사업
- 커뮤니티 사업

3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설립목적

문화예술분야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안전망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수주체결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프리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하여 자립적 창업육성 도모

비전

문화예술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예술인 청년의 창작활동과 자립을 지원

주요사업

- 고용안전망 구축 : 프리랜서 고용보험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활용)
- 공동 프로젝트 수주 체결 : 프리랜서 활동경력 지원
- 청년 프리랜서 자립 지원 : 역량강화사업 운영

4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설립목적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공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함

비전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풀어갑니다.

주요사업

- 온·오프라인 과제 발굴
- 의제실행지원 : 과제심화·자원연계
- 의제협업주체 역량강화도모
- 홍보채널운영 : 지역문제해결과정 홍보 및 인식확산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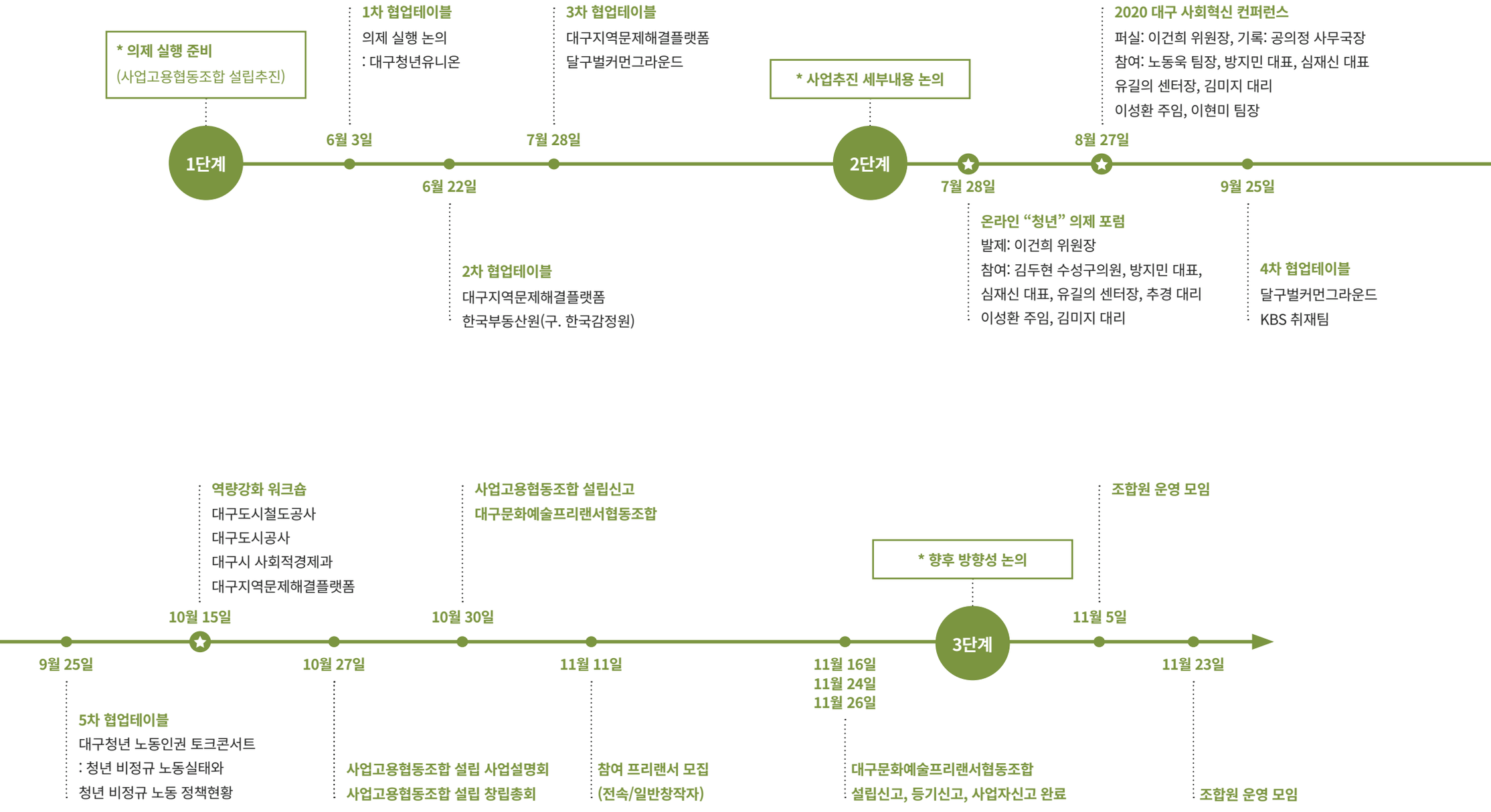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5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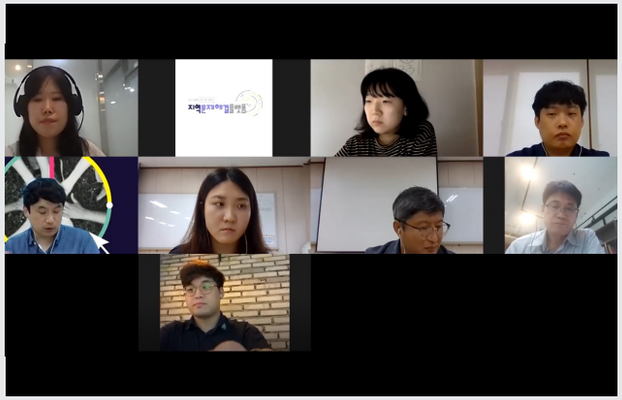
03. 의제 실행 77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청년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16:00~18: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8명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
	대구 수성구 의회	김두현 의원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센터장
	슬기로운낙타	방지민 대표
	누리라프로젝트	심재신 대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추경 대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
	대구도시공사	김미지 대리
기록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주연 매니저

발언기록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우장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방지민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이성환 주임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김미지 대리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또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누리라 프로젝트 대표 심재신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의회에서 김두현 의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에 유길의 센터장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8분을 모시고 같이 사회적 고용의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회적 고용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낯설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많이 노출되었던, 쉽게 말해서 4대보험을 들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고용 해법으로 사회적고용협동조합이라는 해결책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대구청년유니온에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주제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장
대구청년유니온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포럼 주제토론을 맡은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고용 안전망을 위한 제안'입니다. 10분간 주제에 관한 PPT발제를 할 예정이고, 토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청년노동에 관한 현황과 문제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청년 노동과 고용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청년들의 고용실업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보시면 청년실업률은 2015년 이후에 가장 나쁜 수치, 조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체감 실업률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에도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르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채용 대비해서 실제로 채용한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았고, 채용 공고나 일자리 수도 전년대비해서 10%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그 취업을 하기 전에 구직 기간 동안 병행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도 매우 감소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직자 청년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일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올해 3월 대구청년유니온과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79%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는 무급 휴직이나 임금삭감 등 일자리 피해를 입었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심각한 문제는 피해 사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그 대처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없어서 대처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COVID-19 발생 이후 청년고용과 노동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면, 청년 실업문제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를 단지 COVID-19의 여파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COVID-19 발생 이전에도 지속적인 사회 문제였으며 이러한 국가적 큰 재난이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증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안에 따른 문제점을 키워드로 분류 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취약집단인데 사실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청년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 기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체이거나 조금 더 노동조건이 열악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경우, 사업장 내부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처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기반이 약하거나 관련 정책 및 제도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1차, 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의 형태는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그 주변부에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분류 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영역에 있는 일자리 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취업 준비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토론주제 중 하나인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이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Gig-economy이라고 불리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한 사업주가 없이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동자 역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아닌 소득을 얻는 새로운 Gig-Economy 노동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는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특히 이 일자리에는 청년들이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Gig-Economy 뿐만 아니라 청년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례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용형태가 변화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나 삶의 조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관계 법률로써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성한 정책제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청년유니온에서 전국적으로 제안한 노동정책 중 의제 몇 가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COVID-19로 인해서 경제적 일터 피해가 높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같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안전망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고용보험에 대한 이슈나 논쟁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논의할 사업고용협동조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실제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회파하는 수단으로써 사업주가 다시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거나 실제로는 노동자 일을 하고 있지만 마치 개인사업자처럼 고용형태를 회피해서 편법으로 본인들의 어떤 부담이나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처럼 고용회피 방식에 대해서 플랫폼처럼 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일하는 시간과 임금에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보다도 돈을 못 받는 프리랜서들도 많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감소해 소득 또한 감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제 청년 프리랜서들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실제로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면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구에서 COVID-19 피해사례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꼽았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사업고용협동조합인데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업고용협동조합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기존의 임금노동자가 아닌 비전형 노동자들을 협동조합에서 고용을 해, 그들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협동조합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협동조합 등이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조합비를 지원해준다던지 이와 같은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10분간 발표라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COVID-19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의 노출된 다양한 측면의 청년고용문제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소개해주셨던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오늘 풀어낼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작년부터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유럽의 나라들이 협동조합형태인데 이제 고용보험인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은 이제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정부예산의 집행 방식이 용역이나 보조금 형태기에 여기서 파생된 일자리들은 결국 언급하신 Gig-Economy처럼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럽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사업자 협동조합처럼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업고용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협동조합의 전문가이신 유길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낯설 수도 있고 사업자가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개념을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길의 센터장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길의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협동조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직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고 있는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고용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발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리랜서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수익을 일정치 않아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고용이 되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서로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스스로가 낸 수익을 가지고 스스로가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아가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 그런 형태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우리 대구에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활성화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들 수밖에 없긴 한데요, 특히 프랑스에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해서 한 2~3년 전에 많은 분들이 견학을 가서 그 사례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고용해주는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업자 직원으로서의 자율성을 많이 줘서 스스로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것은 네트워크의 지원 또는 집단적 시너지와 같은 지원 등은 협동조합 이름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하면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대금을 회수한다든지 영수증,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세금 처리를 한다든지 회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협동조합이 나서서 계약도 진행하고 어떤 신뢰성도 주어지고, 대출을 하거나 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도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이 하지만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해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셔야 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문제라든가 또는 일정한 기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시급의 정도와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고용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프리랜서다 보니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을 가지고 얼마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책정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마다, 사업 개발 단계마다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정도의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양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데, 그런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업고용협동조합이 활성화되거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시도 해보면서 이런 제도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구지역에 반반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청년들이 마술을 하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마술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공연 또는 공연기획을 했을 때, 수익을 가지고 스스로를 직원화해서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면서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들은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프리랜서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삶에 어떤 그 어려움도 좀 해소하고, 집단적인 공동체 같은 그런 관계망도 형성하고 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정말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 번쯤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의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올해 COVID-19로 인해서 한참 언론에서 청년들의 특수 고용 얘기가 나왔었어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도 앞서 발표하신 이건희 위원장님과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함께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재신 대표님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한 심재신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심재신 대표
누리라 프로젝트

우장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COVID-19 때문에 프리랜서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서 힘든데 이를 대구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자처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타 지자체와 달리 확진자 수도 많고, 급증하여 해결한다고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쏟아 왔던 그 선전들과 홍보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한 대처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들이나 주로 혼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설문조사라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책 제안을 했고 이후에도 운영지원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대구시 청년정책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업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설문조사조차 밀려 실행자체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기에 청년들이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하셨던 조영태님도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COVID-19로 인해 많이 힘든데 왜 지원을 안 해주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서 행정이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청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전화위복이 되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프리랜서로서 사업고용협동조합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이번에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 생활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워크숍 기획이나 행사들이라 끝나고 자료집을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업종이 특수적일 수도 있지만 생활방역을 준수하고 접촉을 줄이면서 일이 더 많아진 상황이죠. 같은 비용에 일이 더 많이 지면서 함께 일할 동료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동료를 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쓰면서도 제가 고용주인가 피고용주인가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사람인이나 이런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려야 하는가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동료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을 통해서 구인을 했습니다.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주로 제도나 법적 근거라면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동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 프리랜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한다는 일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저의 특성이나 근로기준법에 준수해서 고용하는 일하는 업무시간 지켜하는 것,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직종인가 고려해보았을 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도까지는 어렵더라도 시도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도 동료를 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워크숍 보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는 워크숍을 했어요. 프리랜서끼리 협약을 하면서 수익배분 방식을 논의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 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고용협동조합보다는 기본소득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특정집단이나 활동가들만 수혜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활동가나 프리랜서들,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소득이 충족 되면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를 구할 때 어떻게 찾지 라는 고민들을 했고 이런 것들도 이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거나 고민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심재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재신 대표님은 청년들 고용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노력 또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업고용협동조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관계 등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토깽이님이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장에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함으로써 4대보험을 제공하자는 측면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면 토깽이님 말씀처럼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만큼은 지급하게 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 국민 사회보험을 넘어서 심재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논의까지도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 담론의 수준이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조직 운영의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조합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심재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에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또 한 분의 프리랜서인 방지민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같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고민하신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지민 대표
슬기로운 낙타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COVID-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비슷한 개념으로 프리랜서들을 지원한다는 공고가 떴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직접 두류정수장에서 줄도 서고 그랬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저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를 지칭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어디에 소속되거나 매여 있지 않고 따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해서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월급을 받지 않고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관계니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주체와 사회구성원들 간에 제대로 된 사회용어 협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혼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건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나 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리랜서라고 지칭하지만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당사자들이 주체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용하고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과 매우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의 묘미라고 하면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나 혼자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역량을 가진 프리랜서를 만나서 이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묘미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허브(Hub), 플랫폼(Platform) 등 장소가 기반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면대면으로 보고 그런 형태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도록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소통을 부가적으로 더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나 행정적인 지원 못지않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저는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논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공기업들과 수차례 미팅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설립된다면 이전 및 지역의 공공기관들도 역할을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달구벌커먼그라운드의 사회적경제분과가 같이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님께서 달구벌 커먼그라운드가 어떤 조직인지 그 안에 사회적경제분과는 어떤 분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성환 주임
대구도시철도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달구벌커먼그라운드를 맡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달구벌커먼그라운드와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4개의 지방공공기관과 9개의 이전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체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시작해서 3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달구벌커먼그라운드의 분과는 저희 사회적경제분과를 포함해서 일자리분과, 안전환경분과, 혁신소통분과로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회적분과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회적분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분과는 소셜크라우드펀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특별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사업고용협동조합이라는 의제를 발굴해 저희가 들어보고 좋은 주제인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저희 달구벌커먼그라운드로 참여하시게 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 김미지 대리님도 오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고민과 필요 및 전체적인 방향과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실제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어떤 형태의 조직인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 사회적경제분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올해 연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지 대리
대구도시철도공사

네.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김미지입니다. 일단 의제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이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고용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 예산이나 물리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각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분과 뿐만 아니라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협동조합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시도하고 홍보를 하고 널리 지속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를 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업고용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제품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방지민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고려해야 제품의 질도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저도 형태가 공공구매의 형태로든 혹은 후원 내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더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방지민 대표님이나 심재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음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프리랜서 활동가 또는 기업에서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청년의제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하는 것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체

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언어들이 다를 수 밖에 없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같이 찾아가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발언을 하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또는 제도적 기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이 토론에 참여하시려고 엄청난 자료를 학습하셨다고 들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셨던 내용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안녕하세요. 변하고 있는 시대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적인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제도적 환경을 법에서 찾아보니 지자체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프리랜서라든지, 새로 생긴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관련 지원 조례를 2개의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로 찾아보니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동작구입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운영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수성구도 예산의 규모가 3차 추경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1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 2차 추경까지 8천 5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추가로 대규모 편성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까 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센터장님께서 발제하실 때 가졌던 의문은 결국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출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신뢰도나 제도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데, 만약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담을 안고 가입을 할 것인가,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낼 것인가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이나 가입비는 별도의 지원이 있나, 아까 이야기했던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이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도 별도로 청년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되어 처음 시작되었고 청년 조례에 관련해서도 기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기본조례이며 다른 하나는 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청년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는 않고 청년위원회거 구성되어 올해와 작년, 총 2년 동안 청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청년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는 별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구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2년간 사업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센터가 건립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또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갭이어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고용협동조합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면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논의하면서 수성구에서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조례를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는데, 이미 서울 동작구에서 먼저 만들어버렸네요.
오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고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나누어보았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이라고 했을 때 조직의 성향 등의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정된 사업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ON-LINE 의제포럼] 청년유니온 발제문: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고용안전망을 위한 제안

청년 노동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악화

- 2020년 7월 청년층 고용률 40.9%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했다.
- 청년 실업률은 2000년 2월(10.1%)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지만 코로나 19 이후 7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7%를 기록했고 이는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로 좁혀 보면 10.2%이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더 올라간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확장실업률은 그 전달에 비해 2.2%포인트 오른 26.8%였다.
-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2020년 주간 자사 사이트 채용 공고(1월 1주~3월 2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등록된 채용공고는 전년 동기대비 10.2% 가량 감소했다.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5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채용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계획한 규모를 모두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21.4%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공채 역시 규모가 축소됐다. 산업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대졸공채를 한 10대 그룹은 삼성 SK 롯데 포스코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아홉 곳)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는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다. 2020년 2월 7일부터 1개월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4%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뿐 아니라 일을 하는 청년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받았다. 대구청년유니온과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공동으로 조사한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층 피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응답자의 79%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이중 45%가 일거리가 줄거나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 일자리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한 비율도 40%였습니다.
-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처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을 모른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85.9%를 차지했다.

키워드로 정리한 문제점

취약집단

- 코로나19 대유행이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어느 경제주체도 피할 수 없지만, 청년·비정규직·영세자영업·중소기업 등 취약집단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이는 여느 경제위기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은 바로 인력 감축에 나서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고용충격에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 이들을 대변할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 법률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체와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용형태 변화

-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접촉 소비 급감 등 소비 방식 변화, 비대면 서비스와 플랫폼노동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로 내수 중요성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급격한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온디맨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필요할 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부각되었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노동 인력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통적인 경제 형태와 달리, 긱 이코노미는 초단기 계약을 맺어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전형 노동자의 규모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31%를 차지하고 이중 프리랜서는 한국 전체 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

안전망 부재

-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의 변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다.
- 고용형태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의 노동관계법률들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층에서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비전형 노동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는 사회보험 제도에서 배제된다. 경제활동인구 약 27만 명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약 1200만 명이다(한국노동연구원).

격차 심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양극화 및 취업 준비 장기화로 인한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정책 제안

1.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 초단시간 노동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발생 시 구제 신청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지불능력과 관계없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적용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정책 마련

문제 현황 및 제안 정리

1. 청년 프리랜서의 증가
- 전체 프리랜서 중 청년(만 18세~34세)이 47% 차지.

2.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안전망
- 과도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4주가량의 유예를 두고 실업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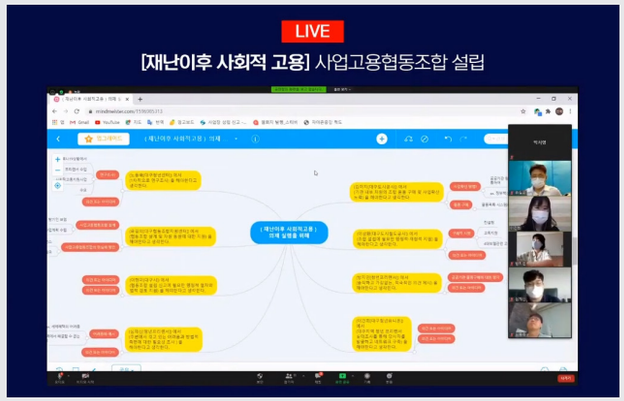
3.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 플랫폼세(稅)를 통한 새로운 고용 회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징수 (근로계약 비중이 지나치기 낮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 별도 과세)
- 소득보험 도입으로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변동성 완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30%를 3개월 간 지급)

4. 실태조사 및 관련 조례 제정
- 전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5.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 생계비 지원
-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정부의 생계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움

6. 사업고용협동조합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6: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퍼실리테이터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
참여자 : 7명	**대구청년센터**	노동욱 팀장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대표
	누리라 프로젝트	심재신 대표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센터장
	대구도시공사	김미지 대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
	대구시 사회경제과 협동경제팀	이현미 팀장
기록자	대구청년유니온	공의정 사무국장

워크시트 내용

이건희 위원장
대구청년유니온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 청년유니온 에서
청년 프리랜서 네트워크 구축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욱 팀장
대구청년센터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청년센터 에서
1차적으로 연구조사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차적으로 프리랜서들의 수입,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당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
- 센터와 연결된 다양한 청년프리랜서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워크시트 내용

방지민 대표
슬기로운낙타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프리랜서 입장 에서
솔직하고 가감 없는 적극적인 의견제시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당사자 입장에서 솔직하고 가감 없는 소스를 제공해야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

유길의 센터장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에서
협동조합 설계 및 자원 동원에 대한 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신 대표
누리라프로젝트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청년 프리랜서 에서
당사자로서 겪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른 당사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 프리랜서들의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대두되던 문제로, 이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 필요.
-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도 있게 조사해야함.

김미지 대리
대구도시공사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에서
기관 내부 차원의 조합 물품 구매 및 사업 확산 노력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의 물품 목록을 시스템화하여 물품 구매 장려.
-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 확산시켜야 함

워크시트 내용

이성환 주임
대구도시철도공사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전후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교육, 보험 등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써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현미 팀장
대구시 사회경제과
협동경제팀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 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법적 검토 지원을 실행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용안전망의 좋은 모델이 될 것.
- 대구시는 사업고용협동조합의 법적 검토가 완료된다면 대구시협동조합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음.

자유토론 내용요약

제안 **이건희 위원장**
대구청년유니온

• 현재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가?

답변 **심재신 대표**
누리라 프로젝트

• 세제혜택 등의 세금 관련 문제나 노무적인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다.

의견 **유길의 센터장**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청년프리랜서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질문 **이건희 위원장**
대구청년유니온

• 대구도시공사에서 기관내부차원에서 조합의 물품을 구매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의견 주셨는데, 이에 대한 프리랜서의 의견을 듣고 싶음.

답변 **방지민 대표**
슬기로운 낙타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오면 협동조합 내부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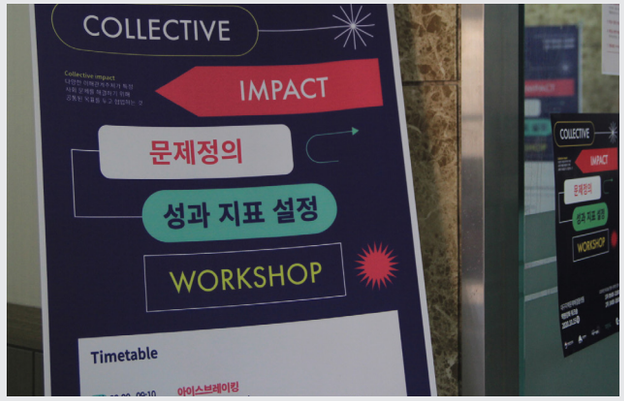
질문 **이건희 위원장**
대구청년유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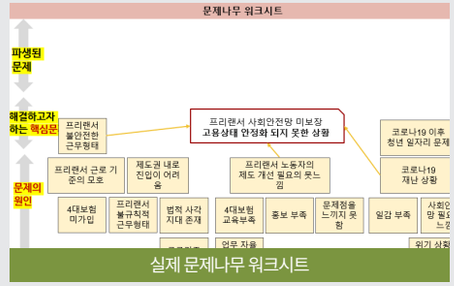
• 1차적으로 프리랜서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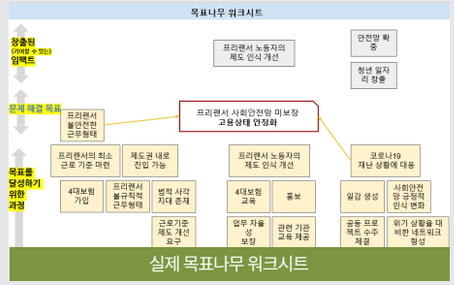
답변 **노동욱 팀장**
대구청년센터

• 기존 프리랜서들과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이해와 필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느 지점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음.

공통의 목표를 두고 협업합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진행 :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2층	
참여자 : 3명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서현지 주무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권준열 매니저
기록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혜민 매니저

워크시트 내용

문제나무 워크시트

파생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미보장
고용상태 안정화 되지 못한 상황

문제의 원인

- 프리랜서 불안전한 근무형태
- 프리랜서 근로 기준의 모호
- 제도권 내로 진입이 어려움
- 4대보험 미가입
- 프리랜서 불규칙적 근무형태
- 코로나 19이후 청년일자리 문제
- 홍보 부족
- 위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함
- 코로나 19 재난상황
- 일감 부족
- 사회안전망 필요성 느낌
- 프리랜서노동자의 제도 개선 필요성못 느낌
- 4대보험 교육부족
- 문제점을 느끼지 못함

1

2

목표나무 워크시트

문제 해결 목표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도 인식개선

안전망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 목표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미보장
고용상태 안정화

3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 프리랜서 불안전한 근무형태
- 프리랜서의 최소 근로기준마련
- 제도권 내로 진입가능
- 4대보험 가입
- 프리랜서 불규칙적 근무형태
- 법적 사각지대 존재
- 근로기준 제도 개선 요구
-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도인식 개선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
- 4대보험 교육
- 업무자율성 보장
- 사회안전망 긍정적 인식변화
- 공동 프로젝트 수주체결
- 위기상황을 대비한 네트워크 형성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자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 3명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의제 실행 논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사업 진행 상황, 활동

안건2. 재난 이후 청년의 노동안정성 보장(사업고용협동조합설립)에 관한 의제 진행상황 및 의견

-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직종별 조사가 있다면 좋을 듯하다
-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무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14:00 ~ 16:00

진행 :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 4명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김영무 대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의제 실행 논의

- 마을기업 리스트 공유
- 의제 200개 공유를 통해 달커에서 의제 선정 논의 예정

안건2. 협동조합 설립관련 논의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사업고용협동조합' 의제에 협업 여부
-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서 이 의제에 대한 협업 대상 논의 예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구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28일(월) 14:00 ~ 15:00

장소 :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4층 (대구 북구 연암로 40 201동)

참여자 : 6명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김영무 대리
대구도시공사	김미지 대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 실행 방향

- 달구벌커먼그라운드 공공영역으로 참여
- 코로나19로 인한 프리랜서 지원체계 마련

안건2.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관련 논의

- 사업고용협동조합에 관한 방향 설정 필요
-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지원 범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구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4차

KBS '라이브 오늘' 방영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의제 협업테이블

개요

일시 : 2020년 9월 25일(월) 10:00 ~ 11:0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 8명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성환 주임
한국산업단지공단	추경 대리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김영무 대리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강은경 대표
	이진욱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및 실행 논의**

- 추진계획 :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후 협력기관과 사후관리 모델 제시

1차. 2020년 일반협동조합 설립

2차. 2021년 사회적 협동조합 변경 추진

- 사업설명회 추진

사업추진 로드맵 가시화: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부일정 공유

협동조합 설립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프리랜서 홍보 및 기관 참여 추진 (10월말)

협동조합 설립 후: 각 기관별 [사업설명회] 순회 방문

안건2.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달구벌커먼그라운드의 역할**

- 교육 및 경영컨설팅의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방향 설정 필요

사회적고용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지원 범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구

- 후속 자금지원(안)

프리랜서 사대보험 및 교육 지원 비용

각 기관별 기부 및 기부금영수증 처리

(시점) 각 기관별 세부논의 후 진행 (ex. 창립총회, 사업설명회 등)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5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05일(월) 19:00 ~ 21:3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 6명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센터장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권준열 매니저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대표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협동조합의 목적 (추진방향)**

- 협동조합 추진 방향과 정관 제2조(목적)을 일치
- 제도적 한계 속에서, 우회적 방향 시도
  - 시작은 프리랜서협동조합(벨기에)으로 설립 이후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 모색

  - 정책토론회 및 실험을 통한 프리랜서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안건2. **협동조합 대상자에 따른 용어정리**

- 용어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단어를 같이 논의
- 전속창작자와 일반창작자 모집 공고 관련

안건3. **협동조합 기타 운영 관련**

- 협동조합의 브랜딩 작업
- 협동조합의 운영 공간 및 상근직원 마련
- 협동조합의 전문인 조합원 확대
- 협동조합 소통 채널 만들기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재난 이후 사회적고용 협업테이블 6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16:00 ~ 18:0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 5명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센터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권준열 매니저
	슬기로운 낙타	방지민 대표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협동조합의 브랜딩 아이디어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의 목적 가시화

안건2. 정책연구집 제작 아이디어

- 정책연구집 제작 일정: 2020년 11월 말 ~ 12월 중순 예정
- 사업고용협동조합의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정책연구집 관련 내용 목차

- 청년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추진 내용
- 각 부처 간 정책자료 수합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 문화예술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제안 수합

안건3.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진행상황

- 노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 중 희망자 소통중

안건4. 협동조합 향후 계획

- 프리랜서(전속/일반)창작자 모집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가치창출) 실행에 협력 예정

- 창작자 원데이클래스 등

참고자료

대백프라자-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력사업 제안(안)

추진배경 및 목적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과 대구지역 시민사회와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사례 발굴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매장을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청년 스타트업이 활용하여 기업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매장 방문 이용 증대

추진방향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추구
  : 입점을 통한 판매 및 전시
- 향후 시민참여 행사 공동기획 (공간 대관,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개요

- 일 정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 장 소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8층 아동복 매장 (약 8평)
- 내 용 :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청년 스타트업의 판매(체험) 및 전시 공간 활용

추진일정

사업계획	파트너 구성	사업준비	사업진행
~2020.10	~2020.11	~2020.12	2021.1~12
• 제안서 검토 • 세부계획 수립	• 업무협약 • 파트너십 구축	• 매장 입점 • 사업 홍보	• 매장 운영 •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

다음 세대를 위한 착한 소비

단체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소개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 설립 중인 청년프리랜서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청년 스타트업)
내용	• 프리랜서 굿즈 판매 : 티셔츠, 독립출판물, 디자인굿즈, 기타 등 • 대구문화프리랜서협동조합 홍보: 사업소개, 데모영상 전시, 업체문의 등 • 원데이클래스 개설: 티셔츠 만들기, 디지털드로잉, 유튜브영상제작 등
효과	• 육아맘을 대상으로 한 굿즈 판매 및 원데이클래스 개설 • 사회적 이슈(청년프리랜서 고용문제) 해결에 동참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대구청년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청년 비정규 노동실태와 청년 비정규 노동정책현황

개요

2020년 9월 25일 (금) 오후 7시

기획 : 대구청년유니온

장소 : 대구 오오극장(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7)

참여자 : 7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레인메이커협동조합	박경제 프리랜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노효철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박경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혜윰	이현우 공인노무사

논의 내용 요약

토크콘서트 배경

-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대면 서비스, 문화예술, 공연 등 주로 청년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아르바이트 등 비전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미비하다.

- IT 기술 발달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법과 근로기준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표

- 청년들이 일터(ex. 아르바이트)에서 겪는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논의 장을 마련한다.
- 경제, 사회, 노동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 및 기술 발달로 인해 달라진 일자리 형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토크콘서트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청년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알린다.

프로그램 세부계획

구분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회	19:00~19:10	오프닝	• 영상 시청 • 사회자 인사
1부	19:10~20:30	포럼	• 주제: 청년 비정규 노동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 발제: 1. 청년 비정규 노동 실태, 2. 청년 비정규 노동 보호 정책 현황 • 패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레인메이커협동조합 박경제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비정규 노동의 증가 원인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제도 개선 방안
휴식	20:30~20:35	영상	• 노동법 영상 시청
2부	20:35~21:15	무엇이든 물어보살	• 패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노효철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박경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혜윰 이현우 공인노무사
폐회	21:15~21:30	노동법 퀴즈	• 노동법 퀴즈를 통해 사은품 증정 노동법 ox퀴즈 등 간단한 퀴즈와 사은품 증정

토크콘서트 더 알아보기

고용 형태

비정규직 정의 및 규모

•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파악함.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노동자다.

•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가 노동 부문 최대 공약으로 등장했다. 대선에 앞서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 설정 및 통계 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로 5월 6일 제16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7월에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는 이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 비정규직 통계에 사용되고 있는 각 항목의 정의

• 한시적 노동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 노동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

• 비전형 노동자(근로제공방식):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대상자 중에서 임금노동자라고 답한 사람 중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답한 사람들을 모두 합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된다.

• 2019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은 63.5%, 비정규직 비율은 36.4%였다. 2020년 8월 기준 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63.7%, 비정규직 노동자는 36.3%였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숫자가 증가하는 중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둘 간의 비율은 2003년 집계 시작 이후 큰 변동 없이(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63~67%대 사이) 유지돼 오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비율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4%로 전년보다 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은 3.4%(33%→36.4%)였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상승률은 높았다.

• 청년(15~29세)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도 약 4% 높은 수준이다.

• 대구의 경우 직장인 중 46%가 비정규직(2015년 대구경북연구원 통계)

• 음식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청년 비정규직 노동실태

• 2019년 기준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을 살펴봤을 때, 정규직 월 임금총액이 3,612천 원일 때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은 1,643천 원 (통계청)

• 2019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 가입 비율이 평균 약 97%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4%였다. (통계청)

•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 소속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의 비율은 67%, 고용보험 가입률은 63%로 나타났다. 대략 30% 정도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 같은 조사에 따르면 19~24세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50% 초반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67~73%로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1%, 고용보험 가입률은 84%였다. 임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29%, 고용보험 가입률은 30%였다. 일용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모두 10% 중 후반대였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산재를 당한 15~2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는 지난해 상반기 4732명보다 10% 증가한 5206명이었다. 전체 재해자 가운데 청년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9.8%에서 올해 10.1%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함.

아르바이트 노동

• 2020년 4월 알바몬이 최근 1년간 알바 경험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4%가 스스로를 프리터족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4%p 증가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6.1%, 30대 45.8%가 자신이 프리터족이라고 답했다.

• 자발적으로 프리터족을 선택하기 보다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프리터족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9.5%로 많았다.

•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청년유니온이 조사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23.8%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5.8%)에 비해서 비수도권(22.5%)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심각하였다.

• 같은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52.7%가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10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도 15.5%에 달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 40.5%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하였다. 늘리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의 94.3%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 이유를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플랫폼 노동

• 2019년 3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조사에 따르면새로운 특수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는 약 55만 445명

• 배댈앱을 통한 배달대행노동자, 대리앱을 통한 대리운전기사, 온라인 주문을 통한 새벽배송,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나 타다 서비스, 숙박 공유서비스의 에어비앤비, 집안일을 해주는 태스크래빗 등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특히 배달은 청년 산재 사망 원인 중 1위이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24세 청년의 44%(72명 중 32명)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랜서

•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프리랜서 중 청년(만 18세~3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이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천원이었고 절반 이상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고 일방적 계약파기(60.9%), 대금체불(23.9%) 등의 경험이 있었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고, 그 중에서도 청년의 피해가 컸다. 대구청년유니온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피해 사례 결과발표에 따르면 응답 청년의 79.6%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응답자의 고용형태 중 9.4%가 프리랜서(특수고용)이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정책

정부 정책 현황

• 비정규직 법안 처리 미흡: 20대 국회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 제정안, 공항의 보안검색업무에 대한 파견직 사용을 금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폐기되었고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계류 되었다.

•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위주 정책: 코로나 19 이후 공공일자리 청년층 15만명에게 지원, 구직촉직수당, 추가고용지원금 등 대부분 고용 정책

지방정부 정책 현황

•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대구시청년알바돌봄사업,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사업,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사업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생계비 지원: 서울시 코로나 19 완화를 위한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부 5대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일자리 질 개선 분야)

• 기간제법 개편: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개편/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기간제, 파견노동사용 금지/기업의 정규직 채용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연차휴가 부여 추진, 여성·비정규직의 출산휴가급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03 의제실행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
사업설명회 및 창립총회

1

2

1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이 11월 26일에 출범했고, 이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과 (전속/일반)창작자를 모집했고, 최대 1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에서의 구성원은 이사, 감사 자문위원, 조합원, 프리랜서(전속/일반 창작자) 입니다. 조합원은 후원자 형태이며, 프리랜서의 상담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전속창작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해주고 또한 프리랜서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분야별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의 활동 경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창작자의 경우 전속 창작자와의 차이는 조건부 고용보험입니다. 이외에는 전속창작자와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모집 분야는 문화기획자, 그래픽디자이너, 영상제작자입니다. 모집 대상은 전속창작자의 경우 만 19세 ~ 39세 사이의 대구 예술인 프리랜서이어야 하지만, 일반창작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이 예술인 프리랜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선발이 완료되면 전속 및 일반 창작자들과 계약을 하고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2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사업설명회

유래없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특수고용의 형태 노동자 (ex.프리랜서) 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프리랜서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 더욱이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불안정한 요소들을 줄여 안정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중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분들과, 공공기관 관계자분들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왜 우리가 설립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총 32분이 현장에 참석하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주셨고, 문화예술협동조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와 향후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표해주셨습니다.

3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 창립총회 및 설립완료

창립총회에는 다양한 민간, 공공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참여하셨던 분들 중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이사와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대구문화프리랜서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총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이 11월 16일에 설립 신고를 했고, 11월 26일에 사업자 신고 완료 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내용으로 총 크게 3가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랜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만의 특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수주를 체결하면서 활동경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이 기수가 끝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분야별 교육,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 프리랜서 주관 원데이클래스개설 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

청년

프리랜서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81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89P

01 의제 실행 성과

재난이후 사회적 고용: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달구벌커먼그라운드(공공기관 협의체)와의 협업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후원

② 공동프로젝트 수주 체결

③청년프리랜서 자립지원
- ‘민간유휴 공간 가치 창출’의제 협력 – Hey Commonz!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설립 완료 **11.26** 월.일

관련 기사 언론보도 **5** 회

분야별 후원자 조합원 모집 완료
회계/경영/노무/협동조합설립 지원 전문가 등 **11** 명

참여 희망 전속/일반 프리랜서 지원자 **29** 명

전속/일반 프리랜서 모집 **10** 명

협업테이블 **6** 회

기관 참여 **8** 개

01 의제 실행 성과

사업고용협동조합설립 추진 자체 평가

사업고용협동조합 추진

-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을 위한 전담 담당자 인력(1명)
-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완료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 프리랜서의 개인사업과 근로자 지위를 결합한 것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활용)
- 지역사회 후원자 조합원 모집을 통한 청년 프리랜서 지원체계 구축
- 분야별 후원자 조합원 추가 섭외 중 (회계사, 노무사, 문화예술 활동가)
- 대구의 문화예술 프리랜서 발굴 (지원자 29명, 최종 10명 계약 예정)
- 협동조합의 구매 고객인 공공기관 실무자와 사업추진 진행 : 총 5회
- 공공기관(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의 협동조합 예산지원
- 언론보도 및 방송으로 홍보 활동 : 총 4회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의 목적 가시화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운영 자금의 불안정 : 프리랜서 지원 및 협동조합 운영(인건비, 기타 등)
- 대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청년 프리랜서 발굴의 변수
- 자금 및 초기운영을 위해 협동조합의 모집분야를 제한 (모집분야: 그래픽디자이너, 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
- 프리랜서 간 업무능력에 따른 불확실한 성과 결과 우려
- 공동 프로젝트의 수주 체결을 위한 마케팅 필요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

구분	시간	세부내용
1	대구청년유니온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방식 제시
2	경북대학교	졸업 후 대학생의 삶을 연구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제시
3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노동방식의 변화 속에서 대안적 프리랜서협동조합 모델 실험
4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청년 사업장으로서 협동조합 간 상생을 이루는 주체로 협업
5	달구벌커먼그라운드	협동조합 설립 및 구매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예술인을 넘어 비정규직, 타 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 마련
- 프리랜서 지원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공동 구매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별 업무체결 진행
- 협동조합의 업무확장을 통한 모집분야의 점진적 확대

01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설립현황

국세청 nts.go.kr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426-87-01876

법인명(단체명) :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대 표 자 : 엄창옥

개 업 연 월 일 : 2020 년 11 월 26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39-2(대명동)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39-2(대명동)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영상제작, 광고영화제작
정보통신업 / 출판업
도소매업 / 상품중개업
정보통신업 / 홈페이지제작
정보통신업 / 온라인정보제공
정보통신업 /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연구용역컨설팅, 교육사업
(별지 출력)

발 급 사 유 : 신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V)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0 년 11 월 26 일

남 대 구 세 무 서 장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조직도

조합원

연번	조합원	이름	소속
1	이사장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	(상근)이사	권준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3	이사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4	감사	유길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5	조합원	우장한	(사)대구시민센터 팀장
6	조합원	방지민	前슬기로운낙타 대표 (청년프리랜서)
7	조합원	강은경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이사장
8	조합원	박수용	이번주말 대표
9	조합원	이명균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0	조합원	이현우	노무법인 혜윰 공인노무사

그 외에도 한겨레 기획기사 등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으로 관련한 사업고용협동조합 기사 다수.

1

대구 청년 예술인 고용안전망 마련 협동조합 뜬다.

2020-10-27 <뉴스민>

2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달구벌커먼그라운드, 청년 문화예술 프리랜서협동조합에 힘을 쏟다.

2020-12-31 <영남일보>

3

코로나시대, 예술인 고용안정 돕는다.. "대구문화예술프리랜협동조합" 발족

2020-10-28 <대구신문>

4

사회문제해결/일자리창출 두 토끼 잡는 지방재정공제회

2020-11-02 <문화일보>

대구 청년 예술인 고용안전망 마련 협동조합 뜬다

newsmin.co.kr/news/53143/

2020-10-27

대구에서 민관이 함께 지역 청년 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나선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지역 공공기관 협의체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대구시 등은 지역 청년 예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안정적인 일감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정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개정해서 12월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같은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아 정당하게 용역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예술인이 각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자리 잡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이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달구벌커먼그라운드 등이 설립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이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대구·경북 청년(만 19~39세) 프리랜서 예술인과 후원자 조합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 참여하는 13개 지역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재정적·사업적 지원에 나선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 소속 공공기관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업무 중 조합 소속 예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조합에 맡기면, 조합에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는 방식이다.

권준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는 “다른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하지만 공공기관 연계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도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일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계는 있다. 이제 첫발을 떼는 수준이라 예술인 조합원을 15명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조합이 제공하는 일감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고, 고용보험료도 지원받는다. 다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회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입 받는다는 계획이다. 회원도 조합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 매니저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조합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그래서 회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고, 예산을 확대해서 조합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행사예술감독, 공연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금으로 3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에는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13개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영남일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달구벌커먼그라운드, 청년 문화예술 프리랜서협동조합에 힘을 쏟다

박종문 | 입력 2020-12-31 발행일 2021-01-04 제32면 수정 2020-12-31

대구지역 13개 이전공공기관 협업
대안적 협동조합에 큰 기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대구지역 공공기관 협의체인 '달구벌커먼그라운드'는 최근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고용협동조합'(조합명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달구벌커먼그라운드는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형성하고, 지자체·공공기관·민간 영역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주 체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간의 사회적가치(CSR) 업무 협의체로 13개 기관(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속돼 있다.

달구벌커먼그라운드는 최근 청년 예술 프리랜서들의 고용안전망 지원과 역량개발을 위해 협동조합에 후원하였다고 밝혔다. 후원을 통해 향후 '협동조합'은 연계된 창작자(청년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창작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워크숍, 분야별 교육, 개별 콘텐츠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주관하고, 달구벌커먼그라운드와 <사>대구시민센터가 주최한다. 협동조합은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프리랜서에게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7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달구벌커먼그라운드가 대구 중구에 위치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을 강화하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

2020년 하반기에 창작자(프리랜서)모집을 진행하여 최종 10명이 함께 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공동프로젝트 수주와 협동조합 내 사이드 프로젝트(개별콘텐츠 개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엄창옥 이사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본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청년 프리랜서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나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주도적 참여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예술인 고용안정 돕는다…‘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 발족

조혁진 | 승인 2020.10.28 21:30

사업고용협동조합 방식 표방
고용보험 가입·교육 서비스 지원
공동프로젝트 수주 유치 등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에 놓인 대구지역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가 뭉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사업고용협동조합 방식을 표방한 협동조합이다.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은 27일 오후 ‘사업 설명회 겸 창립총회’를 열고 “프리랜서 조합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공동 프로젝트 수주를 체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프리랜서가 대부분 간접 고용돼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고 임금 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주 역할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며 예술인 프리랜서들의 불안 요소는 더욱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등을 위한 행정, 회계,고용보험 가입, 교육 서비스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 구축 및 조합원 창업 지원 △협동조합 주최로 공동프로젝트 수주 유치 △프로젝트 수주 수수료(10~15%)를 통한 운영 자금 마련 등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들이 표방하는 방식은 사업고용협동조합으로, 조합이 구성원에게 사업자직원(근로자)의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수령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형태다. 아직은 첫발을 내딛은 단계여서 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통한 용역계약을 맺는다.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02일 프린트 닫기

사회문제해결·일자리창출 두 토끼 잡는 지방재정공제회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각 권역 플랫폼과 5대 의제 선정
민관협력 통해 청년고용 등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발전 지원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민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행안부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약소기업 회생,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관·공공 부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각 권역 플랫폼과 함께 5개의 의제를 선정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경남·충북·광주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5개 의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층 고용안정 △고령화 문제 해결 및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인한 약소기업 위기극복 △기후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여행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앞서 공제회는 지난해 11월 행안부과 업무협약을 맺고 충북·대전·광주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사업,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해 41개 일자리와 약 570명의 지원 인력을 구축했다.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사회적 가치와 고객동행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제시

정책토론회개최

Step 1
정책 연구집 제작 및 배포
Step 2
정책토론회 개최
Step 3
정책제안서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비영리 정신으로 발전하기 위해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3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조성**

협력기관별 업무체결 진행 (예정)

모집분야의 창작자 점진적 확대 (예정)

4 **기대효과**

- 예술인을 넘어 비정규직, 타 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공론화

5 한국형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위한 제도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 소득신고제 개정 등)